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SNS 채팅방을 개설하여 휴대폰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인증번호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호자의 휴대전화를 자녀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알려주기 싫은데..

뭐야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지..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01

명의자 계정 해킹

02

불법사이트 무단가입

03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 활용

학생 피해예방 수칙

- 1 타인에게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마세요.
- 2 친구, 선배들의 부당한 인증번호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호자·선생님과 상담하거나 **학교폭력 상담센터(117)로 연락하세요.**
- 3 인증번호 요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학교폭력 상담센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부모 피해예방 수칙

- 1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함께 대화해 주세요.**
- 2 자녀가 친구, 선배들과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휴대폰 인증번호, SNS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3 자녀가 보호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타인에게 알려준 것은 아닌지 **충분한 대화와 지도해 주세요.**
- 4 자녀가 강요에 의해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상담하세요.**

2025년 3월 13일

정 산 중 학 교 장 귀하